

서 정 대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3학년도 서정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서 정 대 학 교 총 장

기안자

승홍배

인력개발과장

김종윤

학생복지처장

신우성

총장

김홍용

협조자

시행 학생복지처 제 호 (2013.01.29.)

접수

(

)

우 482-777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 www.seojeong.ac.kr

전화 031-860-5014 전송

031-860-5053 / kimjy@seojeong.ac.kr

/ 공개

2013학년도 서정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학년도 서정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소집 통보일: 2013년 1월11일(금)
위원 정수 : 10명, 재적위원 : 10명

1.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13:00 ~ 15:00
2. 장 소 : 서강관 1층 학생복지처 세미나실
3. 안 건 :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 평가 및 토의
4. 참석자 명단

구 분	직 명	성 명	비 고
참석자 (10명)	위원장	신우성	교직원
	부위원장	이승현	교직원
	위원	김종윤	교직원
	위원	송은정	교직원
	위원	지승환	학생
	위원	강신애	학생
	위원	이소라	학생
	위원	박종성	외부 전문가 위원
	위원	김종욱	외부 전문가 위원
	위원	박상민	동문

5. 안건에 대한 주요의견

▶ 신우성(위원장) : 등록금 심의위원이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박종성, 김종욱 외부 전문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회 측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등록금을 인상/인하/동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2학년도 서정대학교 등록금은 전년대비 약 2.3% 인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장학금과 연동하여 등록금 인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상황과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고 본 대학의 발전방향과 학생들의 복지라는 두가지 차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등록금 수준에 대해 고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윤(위원) : 김중윤입니다. 먼저 학교 측의 기초자료와 학생회 측의 준비자료를 검토해보시면서 등록금 심의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우성(위원장) :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들을 잠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들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현(부위원장) : 이승현 교무처장입니다. 교무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년도 편제정원은 3,552명이고, 13학년도 편제정원은 3,504명입니다. 정원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에서는 신규교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원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학교 예산을 보면 교비 예산은 12학년도에는 약 316억이었고 13학년도에는 약 334억 정도로, 전년대비 약 17억 정도로 증액시켜 편성했습니다. 편제정원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등록금이 인하된다면 대학의 재정상황에 부담이 될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우성(위원장) : 이승현 교무처장께서는 신규교원 확보로 인한 인건비 예산 증가 부분과 학교 예산 증가로 인해 등록금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십시오.

▶ 김중윤(위원) : 저는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의 13학년도 국가장학 사업 시행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학년도에도 국가장학금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어 집행하고, 유형2는 학교의 자체노력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국가장학금 혜택범위가 소득수준 8분위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는 부응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대학은 13학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신입생이 유형2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가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우성(위원장) : 네, 잘 들었습니다. 김종윤 위원님은 국가장학금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승환(위원): 총학생회장 지승환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중 총학생회관련 자료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의 인상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생회의 공약 중 도서관과 강의실, 기숙사 등의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도서관, 강의실,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다면 학생회는 등록금 인하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반값 등록금 같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주시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신우성(위원장): 총학생회장은 서정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등록금 인상은 불가하며, 학교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등록금 인하요구를 양보할 의사가 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성(위원): 등록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보면 전임교수 확보, 학교 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정대학교의 등록금은 동결 내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등록금 결정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측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생복지를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송은정(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대학교의 12학년도 등록금 수준은

수도권의 43개 대학 중에서는 27위이고, 인근의 14개 대학과 비교해보아도 11위 정도여서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박상민(동문) : 동문대표로 참석한 박상민입니다. 동문으로써 후배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한편으로는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가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등록금은 동결 내지 인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우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등록금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국가장학금 유형 2의 수혜를 위해서는 13학년도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적인 재정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수도권 인근의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며, 재정지원제한 조치로 인해 교비 장학금을 확충할 계획이므로 등록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2013학년도 등록금 수준은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인하한다면 인하율은 어느 정도여야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윤(위원) :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 2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내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의 등록금 결정에는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대학의 전임교원확보,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을 위한 지출을 고려하여 등록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입생의 경우는 동결, 재학생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록금을 인하한다면 전년도 대비 1%정도의 인하율을 제안합니다. 1%의 인하율이라면, 국가 정책에 협조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마련에도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현(부위원장): 김종윤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 송은정(위원) : 김종윤 위원님의 제안에 재청합니다.

▶ 신우성(위원장):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하겠습니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안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체: (거수로 찬성한다)

▶ 신우성(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서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2013학년도 서정대학교 등록금은 신입생은 동결, 재학생은 1%인하하는 방향으로 학교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명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위 사실을 확인함.

등록금 심의 위원회

위 원 장

신우성



부위원장

이승현



위 원

박종성



위 원

송은정



위 원

김종윤



위 원

지승환



위 원

강신애



위 원

이소라



위 원

박상민



위 원

김종욱

